

나는 참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은 요한 복음 15:1-4 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 관계를 포도 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못맺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연합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 :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 :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낱말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농부라는 말은 포도원의 vine-dresser 라는 뜻으로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키우고, trim 을 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하실 때도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도 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10 : 1 은

호세아 10 :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 나무라 고 하며,

이사야 5:7 에는

이사야 5 : 7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고 말함으로, 포도원과 포도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 : 1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사야 5 :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뒀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으셨지만 들포도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 :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 :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 만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 :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열매맺는 참포도나무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들포도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는 참포도 나무로 오신 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육신적 이스라엘은 지금의 유대인들로 야곱의 12 아들을 따라 온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하며,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해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참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따라 온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 :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대비는,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6:16 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보는 ‘땅의 예루살렘’ 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의 신령한 예배처소로 ‘하늘의 예루살렘’ 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4 장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에서와 같이 하갈의 소생이며, 영적 이스라엘은 자유하게 하는 여자 사라의 소생이라고 대비합니다(갈 4 장).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은 모두 참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가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못뺏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 년 동안 우주의 보헤미안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영적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적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에 게울리 해서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로마서 11 :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 :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Union with Christ- 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신자간의 연합을

요한복음 15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연합에는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법적인 연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믿음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연합에 의해 영생부여의 기반이 됩니다.

다음 생명의 연합은 법적 연합으로 의롭다 여겨진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연합의 결과로 죽었던 영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라는 명제는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것은 아담 안에서 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의 의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foundation 입니다.

이와같이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인 연합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만 생명의 연합은 천차만별의 연합의 상태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연합의 상태를 유지 하느냐?” 하는 것에서 모든 열매가 결정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신자와의연합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union)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다윗왕은 시 1 편에서 복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맑은 물을 공급받으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예수님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 잘되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나, 연합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은, 신자들의 축복과 능력있는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요한 복음 15 장에는 예수님과의 연합 상태를 나타내는 세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unattached branch) 가지입니다(v, 4).

요한복음 15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둘째 가지는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unfruitful branch)입니다(v, 2).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니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unfruitful branch)입니다.

셋째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v, 2).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니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니라

다음은 각 가지의 연합의 상태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장미를 심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그루에서 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는 탐스럽고 큰 장미 꽃이 피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건강치 못한 가지도 있고, 웬일이지 점점 말라 죽어 버리는 가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연합의 상태로서 설명하셨습니다. 연합 상태에 의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이 공급됨과 동시에, 신앙 생활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열매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연합 상태를 알고, 어떤 가지인가를 check-up 하고, 연합 상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상태에 있어서

<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먼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unfruitful branch)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요?

마태복음 13 : 20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태복음 13 :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과거의 한 때 믿음의 싹과 봉오리는 가지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태까지 열매가 없는 쪽정이 신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가 없는 앓은병이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주님은 찾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불신자들과 어울려 불신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서는,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business 를 위해 옵니다.

마태복음 13:22 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 : 22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 버린다고 하십니다(v, 2).

포도 나무는 덩굴이 자라 가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주어야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때 그 때 쳐주어서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줍니다.

연합의 상태에 있어서

< 내 안에 있지 않은 가지 >

요한복음 15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음은 예수님께는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지는 날이 갈수록 살아 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가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가지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포도 나무 안에는 있지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양 우리 안에 있는 염소와 같은 존재로,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일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이런 가지는 밖에 버려졌다가 불사름을 당합니다(v, 6).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가지를 길가에 떨어진 씨로, 말합니다(마태복음 13:4-6). 이런 사람도 말씀은 듣지만 사탄이 와서 얼른 씨를 빼앗아 버립니다.

마태복음 13 :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최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의 최후 상태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불살라 집니다.

연합의 상태에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

요한복음 15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 :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는 가지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예수님이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 깨끗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13 : 23 에서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흑백배, 흑 육십배, 흑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 연합을 위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잘 맺히도록 계속 가지를 깨끗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별로 더러운 것 같지 않아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거들랑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순간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엔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네!’ 하는 절규가 나올 것입니다.

연합의 상태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 : 17 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 : 19 에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보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15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의 상태에 있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여 열매맺는 가지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곳에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은 죄와 버려야 할 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행동을 비쳐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 주님과 연합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신자의 연합의 상태의 견고함에 따라 축복과 능력이 흘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연합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강한 연합의 상태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 듭니다. 견고한 연합의 완성된 상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였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연합의 상태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견고한 연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아니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연합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안에 있지만 견고한 연합의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 못함을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저희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우리의 인성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강하고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언제 이루셨느냐?

이 땅위에 육신으로 사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죽고 난 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도 이 땅위에 살 때부터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삶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심으로 장수함으로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강하고 견고한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하였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23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는 말은, 7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 If ye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e shall ask what ye will,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거한다는 말은 모두 abide in 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말씀이,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 우리의 전 삶을 말씀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매일 강하고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찌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매일 매일 강하고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져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축복이 덩굴째 구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견고한

<연합된 자가 누리는 축복의 약속>

요한복음 15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은 강하고 견고하게 연합된 자가 누리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연합된 자에게는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이 공급됩니다.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신비한 능력에 의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하게 됩니다(벧후 1:3-4). 또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약 3:17-18). 바울 사도는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갈 5:22-23).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롬 1:13).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강하고 견고한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를 멀리서 찾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도응답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하게

<연합한 자가 들어가는 제자의 반열>

요한복음 15 :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강하고 견고한 연합으로 인하여 과실이 풍성해지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 가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사가 되리라, 장로가 되리라, 목사가 되리라 하질 않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합니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스텝은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번째 스텝 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자신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위선이 됩니다.

요한복음 15 :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 :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가르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킨 삶이 제자가 된 삶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견고한 연합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는 기쁨>

요한복음 15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것은 9 절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 받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은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강하고 견고한 연합은 우리 축복과 능력있는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그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과 강한 연합은 계속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 가게 되고, 열매와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순종과 기쁨이 CD 를 듣는 분과 인터넷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직장에

항상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